

## < 학 습 지 도 안 >

**2019 학년도 봄학기(6 주차) 4 월 06 일 백두반 남 일 교장**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 한글날 제 573돌이 되는 해**

단원 명(과)	백두반/졸업반 봄학기 수업 제 6주차			
	문법-관용표현-읽기와 쓰기 및 발표하기			
교재	조선시대 역사2•알쏭달쏭 헛갈리는 맞춤법 & 한국한자검정 6, 7급			
	한국문화/역사 100선•SAT한국어 문제(어휘력 & 읽기 강화)•시사관련 자료			
본시 지도 목표	말하기			
	듣기			
	읽기	漢字 공부를 통한 우리 문화 및 역사 심터		
	쓰기/숙제	한자 7급(16) 및 한영-영한 번역대회 준비(3.1운동 1백주년 관련)		
	기타 활동	16일 2세대들과의 대화를 위해 12시 10분에 선배 방문		
지도 내용		시간	평 가	
1교시	보조교사(6주차)		1시간	4월 반장 이유진
	배정된 각 반에서 보조교사로 봉사			
2교시	한국 역사 & 문화			
	김(金)씨는 왜 금(金)씨가 아닐까? 역사적인 변화			
	우리말 ‘편찮다’는 말의 의미와 표현			
3교시 11:20 12:40	고급 한글 & 회화 수업 / 작문교육			
	마무리 및 과제물 배부			

### 제안 및 필요사항/Suggestion & Request

다음 주 공부할 내용: 7가지 한글/영문 에세이 제출: (예)세종대왕 한글

백두반 한글 작문 제목 및 제출 기한 (졸업기준이므로 준수할 것)

\* 백두반 기본 한글 작문 제목 및 제출기한 (작문은 Letter size 에 2 페이지 정도)

- 1) 내가 좋아하는 한국음식 (10 월 20 일까지 제출)
- 2)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와 음악 (11 월 17 일까지 제출)
- 3) 내가 기억하는 전래동화 얘기 (12 월 15 일까지 제출)
- 4) 남한과 북한의 현재, 전쟁과 평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5) ‘기후변화’에 대해 나의 생각을 얘기해 본다. (2 월 23 일까지 제출)
- 6) 나의 미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3 월 23 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 7) 졸업 Speech (4 월 20 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지난 주 3월 30일) 출석/숙제/보조교사 시간 및 Point 합계**

이름	김준영	이상재	이유진	최정완	허슬	결과
출석	1	-	1	-	1	
출석(P)	4	2	4	3	3	
숙제	1	-	1	-	1	
숙제(P)	4	1	3	3	2	
TA	1	-	2	-	1	
TA(합)	13.5	13	18	11	12.5	
Project	5	-	5	-	5	
Project Total	10	5	10	5	10	

* 백두반 '19 졸업반의 보조교사 봉사 계획표/2019 봄학기				
	학생 이름	보조교사 시간	학급 이름	교실 번호
1	허은빈	10:30~11:20	봄반	RM 105
2	최정완	10:30~11:20	여름반	RM 107
3	이유진	10:30~11:20	가을 1 반	RM 142 OW
4	이상재	10:30~11:20	가을 2 반	RM 152 OW
5	김준영	10:30~11:20	겨울반	RM 143 OW

* 백두반 반장(Class Captain/Prefect) 리스트			
Month	NAME	Month	NAME
2018 년 9 월	이상재	2-3 월	이상재
10 월	이유진	4 월	이유진
11 월	허슬	5 월	허슬
12 월	김준영	6 월	김준영
2019 년 1-2 월	최정완	6 월	최정완

* 백두반 졸업 사진 촬영 일정 및 졸업생 발표연습 *			
5월 4일 (1 차)			
5월 18일 (2 차)			
졸업식 발표연습	4월 20일		
	5월 4일		
	5월 19일		
	6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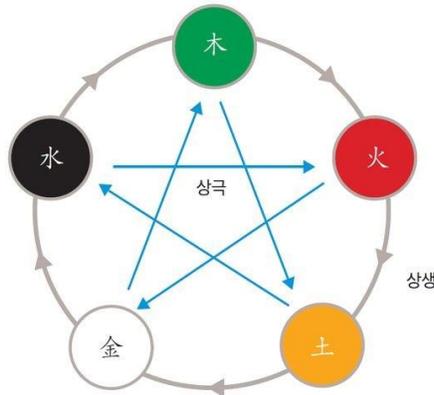
# 김(金)씨는 왜 금씨가 아닌가 - 삼국시대엔 '금'유신 불렀나?



김유신. 정작 신라인들은 김유신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김(金)씨를 ‘금’이 아닌 ‘김’씨라고 발음하게 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중 하나이다. 분명 한자 ‘金’은 ‘쇠 금’이라고 읽는데 김씨 성(姓)에서만 유독 ‘김’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초 과거에는 ‘김’씨가 아닌 ‘금’씨로 발음했을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삼국시대엔 김유신이 아닌 **금**유신, 김춘추가 아닌 **금**춘추라고 발음했다고 한다. 그럼 왜 발음이 바뀐 것일까?

오얏나무 이(李)씨가 금(金)을 ‘김’으로 만들었나



## 오행(五行)의 상생과 상극 관계

현재까지 나온 가설 중 가장 유명하면서도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조선 왕가와 관련된 음양오행설이다.

오행설에는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에서 목(木)은 토(土)를 이기고 토(土)는 수(水)를, 수(水)는 화(火)를, 화(火)는 금(金)을, 금(金)은 목(木)을 이긴다는 상극의 원리가 있다. 그런데 조선 왕조를 건국한 이성계가 전주 이(李)씨인데 ‘오얏나무 이(李)’는 목(木)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목(木)에 강한 금(金)을 꺼렸다는 것이다. 즉 이(李)씨를 이기는 것이 금(金)씨이기 때문에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 김씨로 바꿔 부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건국 초기 정통성이 약해 고민했던 조선 왕실의 사정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다.

KBS 드라마 '정도전' 중 이성계(유동근)



실제로 ‘김(金)’이라는 발음이 15세기 이후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대체로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이 가설엔 치명적 결함이 있다. 김씨는 인구 분포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갖고 있는 성씨 집단이다.

가문을 중시하는 전통을 고려할 때 이런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면 『조선왕조실록』이나 하다못해 개인 문집에서라도 분명 기록이 남았을 텐데 과거 문헌 어디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금’에서 ‘김’으로

그럼 ‘금’이 ‘김’으로 바뀐 것은 언제, 그리고 왜일까?

최근 연구 결과 중 하나는 ‘金’에 대한 중국 발음이 바뀐 것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수(隋), 당(唐) 시대만 하더라도 ‘금’에 가깝던 발음이 5대 10국 시대를 거치며 ‘김’에 가까운 발음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에도 이미 한자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 발음 변화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었다.

시대	先秦	兩漢	南北朝	隋唐	五代	宋	元	明清	現代
성모·운모 見·深開三	kiəm	kiəm	kiəm	kiəm	kim	kim	kim	kin	kin

한자 ‘金(金)’의 발음 변천. 권인한 『성씨 김(金)의 한자음 연원을 찾아서』에서 인용.

그런데 원나라 시절 고려 왕실이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고려에서도 ‘金’의 발음이 ‘김’으로 달라졌을 것이란 추정이다.

### 왜 유독 ‘金’만 영향을 받았을까?

칭기즈칸의 직계 후손들이 ‘황금씨족’이라고 자처하는 등 몽골 상류층은 金(金)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름에도 ‘金’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몽골에서 지낸 고려 왕자 및 상류층을 중심으로 이 발음 변화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지명도 영향을 받았다. 경남 김해(金海)가 대표적인데, 금주(金州)에서 몽골 간섭기인 충선왕 때 현재 지명으로 개칭됐다.

참고로 중세 일본에서 만들어진 『석일본기(釋日本紀)』에는 『일본서기』에 수록된 신라인의 이름을 읽는 법이 나온다. 그런데 ‘金’이라는 성은 ‘코무(コム)’라고 발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라에서는 ‘김’이 아닌 ‘금’으로 발음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당시 발음이 ‘김’이었다면 ‘키무(キム)’가 되었을 것이다.

유방이 건국한 한나라의 영토

‘피휘(避諱)’

『삼국사기』에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천개소문(泉蓋蘇文)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고조 이연(李淵)의 이름을 피한 중국 측사서를 인용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김’으로 바뀐데 대해 음양오행설이 그럴듯하게 유포됐던 건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과거 왕조 시절에 왕실에 위협이 되거나 불손한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거하려 했던 문화가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군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피휘(避諱)’다. 이는 군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꺼려 해당 한자를 뜻이 통하는 다른 자로 대체하는 걸 뜻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나라 국(國)이라는 한자이다.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진나라 때까지 나라를 의미하는 한자로는 ‘방(邦)’이 널리 사용됐다. 국(國)은 왕이 사는 도성을 비롯한 도시를 의미했고, 여기에 주변 농촌이 합쳐져야 ‘방(邦)’이 됐다. 그런데 한나라에 들어와 문제가 생겼다. 건국 시조인 유방(劉邦)의 이름하고 겹쳤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역사책을 비롯한 모든 기록에서 ‘방(邦)’은 국(國)이라는 한자로 대체됐다.

이처럼 고려나 조선에서도 왕의 이름에 쓰인 한자는 이후 백성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기시됐다. 예를 들어 고려 시대엔 세울 건(建)자를 쓸 수 없어 설립(立)으로 대체시켰다. 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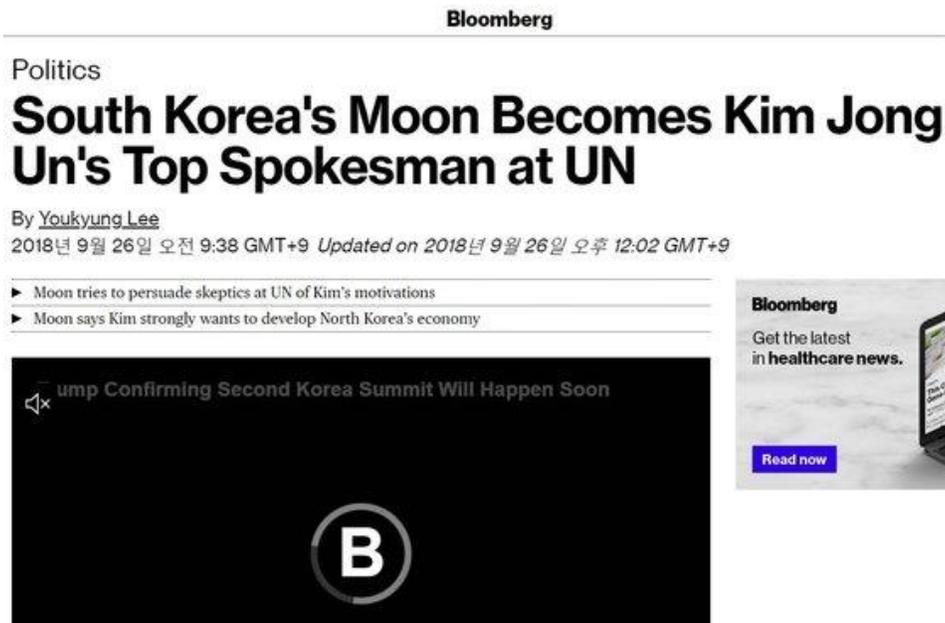


왕건의 이름인 건(健)자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여전히 피휘가 적용되는 것 같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일성’, ‘정일’, ‘정은’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설주’, ‘여정’까지 확대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음양오행설 때문에 금씨가 김씨로 바뀌었다는 속설이 퍼진 건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멀쩡한 한자를 바꾼 군주제의 유산이란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 21 세기 민주공화정에서 국가원수모독죄?

그런데 건국 이래 민주공화정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여전히 군주제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종종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98 년 야당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2015 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법’이라고 지칭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이름을 법안에 함부로 붙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얼마전에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비난하며 양측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9 월 26 일 미국 통신사 블룸버그가 낸 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이다. [홈페이지 캡처]

정치학자들은 한국과 북한이 요즘도 국가 원수의 존엄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놓고 서양과 같은 계약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동아시아에서는 서양의 봉건제처럼 신하와 군주가 서로 쌍방 계약으로 보호를 주고 받는 과정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서구는 영국의 ‘권리장전’ 등을 필두로 계약 위반 시 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처럼 최고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 개념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야는 ‘수석대변인’과 ‘국가원수모독죄’ 표현을 놓고 국회 윤리위에 서로 제소한 상태다. 21 세기 민주공화정에서 이런 이유로 여야의 충돌이 벌어지는 건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군주제의 유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일까?

## '편찮다'는 말과 효도(孝道)

'아프다'의 높임말은 '편찮다'이다.

살면서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도 나를 포함하여 가족과 친구들이 아픈 것일 게다. 늘 인사말에 '건강하세요.'를 쓰는 것은 아픔이 가져다주는 공포가 있어서라는 생각이 든다.

아픈 것은 무엇일까? 물론 아픈 것은 신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인 아픔도 매우 크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아픈 것이 더 참기 힘들다.

'편찮다'라는 말은 '아프다'를 높이는 말로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픔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꺼려져서 돌려서 말하는 것이다. 완곡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의미도 되고, 돌려말한다는 의미도 된다.

옛말을 보면 우리는 주로 병에 대한 어휘를 피하려고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병명을 '마마'라고 아주 높게 부르기도 하였다. 임금님께나 부를 만한 호칭을 병에 붙이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픈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하지 않은 상태로 보았다.

**'편찮다'는 말은 바로 '편(便)하지 않다'가 줄어든 말이다.** 편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아프다는 말 대신 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불편(不便)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어디 불편하세요?'라는 질문도 몸이 무언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의사 선생님들도 어디가 아프냐는 질문보다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는 질문을 선호하는 듯하다.

아픈 것과 편찮은 것은 느낌이 좀 다르다. 아픔에는 직접적인 고통이 느껴지지만 편찮은 것은 그것보다는 범위가 훨씬 넓어 보인다. 아프지는 않지만 불편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편찮음에는 예방의 차원도 엿보인다. 아직 아프지는 않지만, 왠지 몸이 안 좋은 느낌이 들 때도 편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여쭙 때는 단순히 지금 아프지를 묻는 차원을 넘어서 혹시라도 불편한 곳이 있는지도 미리 살펴야 한다.

**몸이 으슬으슬하다든지, 찌뿌둥하다든지** 하는 것도 아프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 편찮은 것이다. 잔기침을 시작한다든지 앓았다 일어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아픈 것과 달리 편찮음에는 관심도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야 편치 않음을 눈치 챌 수 있다. 어르신들이 편치 않은 가장 큰 문제도 역시 '마음'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금방 불편해 지고, 금방 좋아진다. 특히 **나이를 먹으면 금방 서운해 한다고 하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감성적이 되어가기 때문에 누가 내 감정을 살짝만 건드려도 감정이 상하고 서운해진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나?'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서운해지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인 듯하다. 어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을 늘 고민해야 한다.

아픈 것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편치 않은 것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님 방의 바닥 온도를 살폈고, 밤에 마실 물인 자리끼를 갖다드렸다. 그러고는 편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드렸다. 물론 아침에는 편히 주무셨냐는 인사를 드렸다. 부모님의 편한 상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요즘 우리는 어른들께 너무 관심이 적은 것은 아닌지 반성이 된다. **어른들을 편히 모시는 것이 효도다.**

<경희대 조현용 교수>

